



# 정교회주보

제2408호

2023.02.19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그리스 아테네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중의 하나이며, 카프니카레아의 성모 성당 혹은 성모 입당 성당으로 불린다. 돌을 얽은 정방형 십자가 형태의 비잔틴 양식으로 1050년경에 세워졌다. '카프니카레아'라는 명칭에 관해 여러 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세금 징수원(카프니카리오스)으로 일하던 설립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심판 주일 (금육 주일)

한국 선교사들을 기억하는 주일

성 필레몬 사도

성 필로테이 수녀순교자

(제3조 • 조과 복음 3)

## 성 요한 크리소스툼 성찬예배

제3조 부활 찬양송 ..... 81

사도 찬양송 ..... 84

성당 찬양송

금육 주일 시기송 ..... 220

사도경 : 고린토 전 8,8~9,2 .. (봉)432

복음경 : 마태오 25,31~46 ..... 136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 주님 심판의 날에

당신의 심판은 변경될 수 없고, 당신 법정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나이다. 웅변가들의 호소도 증인들도 공평의 저울의 재앙을 변경하지 못하리니, 하느님이시여, 당신은 우리 마음의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나이다.

하느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여, 그날 내가 탄식의 나라에 가지 않게 하소서. 어둠의 장소를 보지 않게 하소서. 손발이 묶여 축제의 장소 바깥으로 내쳐지지 않게 하소서.

세상이 심판받고 당신께서 의인들과 죄인들을 분리할 때, 간구하오니, 나를 당신 양 떼의 하나로 섬해주소서. 사람의 친구이신 주여, 나를 염소의 무리에서 떼어내주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음성,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뜨리오디온 기도서' 중에서

# 튀르키예와 시리아 대지진 난민 구호를 위한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 공지문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한 큰 비극으로 우리 모두는 큰 슬픔과 충격에 잠겨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슬픈 사건을 단순히 동정심만으로 지켜볼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지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강진으로 목숨을 잃은 수만 명의 영혼의 안식을 위해 기도하며, 하느님께서 수십만 명의 부상자와 백만 명의 집 잃은 난민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모금 운동에 동참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무너진 집을 서서히 재건하고 허물어진 삶을 다시 일구어나갈 힘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 남는 것을 베풀어 주시고, 만약 남는 것이 없다면 각자의 필요와 소비를 줄여서라도 이웃을 위한 몫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진 피해를 입은 우리 형제들의 모습으로 굶주리고, 목말라 하시고, 추위에 떨고 계시고, 고통 당하시는 그리스도께 각자가 가능한 만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성당에 전달해주시면, 대교구에서 모두 모아 세계 총대주교청으로 보낼 것입니다. 세계 총대주교청은 한국 대교구와 전 세계의 모든 대교구에서 보내온 헌금을 지진 피해자들의 재해구호를 위해 전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에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 2. 13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이자 일본의 엑사르호스



# 가장 짧은 기도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

기도 중에서 가장 짧은 기도는 무엇일까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몇 번이나 반복할까요? “아주 많이”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트리오디온 첫째 주일에 들었던 ‘세리와 바리사이파 사람’ 비유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보면 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첫째는 교만을 정죄하시기 위함이었고 둘째는 기도할 때 겸손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덕목으로서, 다른 모든 미덕이 놓이는 토대가 됩니다.

신학자 그레고리오스 성인에 따르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알고 자신에 대해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기 인식, 즉 우리 자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 잘 알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겸손한 평가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세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될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마치 지상에서 영원히 살 것 마냥 물질적 재화만을 축적하는 데 평생을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 우리가 가진 목숨, 건강, 아름다움, 지성, 부, 기타 다른 재능과 능력들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것이 마치 우리 스스로의 성과인 듯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다른 이의 실수나 죄에 대해 비난하고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겸손은 굴욕도 아니고, 속으로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는 위선도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세리의 겸손입니다. 비유 말씀을 보면 세리는 기도할 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다음의 말을 반복할 뿐입니다. “하느님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겸손한 이의 기도는 간결하고, 하느님의 자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이는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정당화하지 않고 자신을 정죄하며, 하느님께서 자신의 덕에 대해 상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는 성찬예배와 모든 예식에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는 겸손한 자의 기도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즉, ‘하느님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그분은 홀로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오직 그분의 무한한 자비에 의해서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트리오디온과 대사순절은 영적 투쟁의 기간입니다. 이 투쟁에서 필요한 첫 번째 무기는 겸손입니다. 반면 가장 큰 장애물은 교만입니다. 그러니, 투쟁을 해나가길 원하는 이들은 겸손을 무기로 삼아 열심히 노력하여, 하느님의 풍성한 자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 **참회의 만과**

사순절 전 주일인 다음 주일 (26일)에는 오후에 참회의 만과를 드립니다. 사랑과 용서로 영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두 참여합시다.

■ **이번 주간은 육류를 금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육류는 금하고, 생선, 달걀 및 유제품은 허용됩니다. 축일 달력을 참고하세요.



■ **한국 정교회 선교사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일**

한국 정교회의 기념일(2월 17일) 다음 주일은 한국 선교를 위해 봉사했고, 지금도 봉사하는 모든 성직자들, 협력자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오늘 성찬예배 다음에 안식한 선교사들을 위한 추도식을 거행합니다.

■ **주일학교 진급 및 새 학년 시작을 위한 기도식**

다음 주일(26일), 성찬예배 다음에 기도식이 거행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축복으로 새 학년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 성당 결혼성사**

지난 2월 11일(토), Christopher Jonker - 조이 박기쁨 두분의 결혼성사가 로만 신부와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의 집전으로 거행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

성인의 가르침

파이시오스 수도자

자신은 사람 중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라고 참으로 겸손히 인정한다면, 세상을 위해서 하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단 한 번의 기도는 다른 사람의 수천 번의 기도와 같은 힘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필요에 의해서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는 자신을 위한 것, 죽은 이들을 위한 것 그리고 살아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 등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때때로 제단 위에서 기억될 수 있도록 적어 내십시오.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기 신뢰를 버려야 합니다. 자신감은 하느님의 은총을 막는 큰 장애가 됩니다.

절대적인 신뢰는 오직 하느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때,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